

오리 산업발전을 위한 회원 교육

일시 : 2007. 11. 07

장소 : 국립 한경대학교

후원 : 농림부

오리산업 발전 및 동절기 AI 등 질병 예방교육 성료

본회는 지난 7일(수), 경기 안성에 위치한 국립 한경대학교 축산기술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전국의 약 200명의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한데 모인 가운데「오리산업 발전 및 동절기 AI 등 질병예방교육」을 개최하였다.

이 날 교육에는 정부기관·학계·오리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들을 중심으로 오리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예방대책, 겨울이면 항상 오리산업을 위협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과 발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리산업 제반에 대한 정책, 오리의 소비구조, 그리고 최근에 가금수급위에서 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오리육의 우수 영양성분 분석에 대한 결과 발표 등 오리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첫 강의를 맡은 (주) 주원산오리의 이우진 대표는 “잠재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고기의 인식을 개선, 오리고기 소비행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종오리를 통한 고품질 새끼오리 생산, 다양한 제품개발, 오리육의 브랜드화 및 기능성화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리산업 동향 및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을 맡은 농림부 축산경영과의 조정래 사무관은 “현재 오리생산액은 연 6,480억원(06년 기준)으로 해마다 눈부신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는 축산업이지만, FTA 등 무역 자유화에 따른 여파와 AI 등 질병발생에 따른 수급불안, 수출확대의 한계점 등 국내·외 안팎으로 여러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

■ 김만섭 회장의 개회사



■ 강당을 가득 메운 오리산업 종사자들



■ (주)주원산오리 이우진대표의 강연





■ 검역원 조류질병과 조성준 연구사의 오리질병예방에 관한 강연



■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정래 사무관



■ 검역원 역학조사과 이상진 과장의 HPAI 강연

실"이라고 밝히고 "사육시설 현대화 및 계열화 사업을 확대, 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원종오리사업 또한 적극 육성해 여러 문제들의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참석한 오리업 종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날 마지막 강연을 맡은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송혁 교수는 가금수급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으로 「오리육의 우수영양성분 분석 및 성인의 오리육 섭취가 성인병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실험은 건국대학교 야구부원 20명(남자)을 대상으로,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 자제, 과격한 운동 및 비정상적 생활습관 등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하루 600g의 오리육을 3회에 나누어 섭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로 적혈구 및 백혈구 수치 증가, 체내 독소 해독 능력 수치 증가 등 일반적으로 오리의 효능에 대해 구전되고 있던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 날 사육농가는 물론 부화·계열·유통 등 전 분

야에 종사하고 있는 참가자들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입을 모았다.

한편, 이 날 교육을 수료한 전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증정과 함께 교육이수증을 배부하였는데, 이 교육 이수증을 발부받은 참가자들은 향후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으로 피해발생 시 교육 불이행자보다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일 시 : 2007. 11. 7(수) 11:00~17:00

▶ 장 소 : 국립 한경대학교 축산기술지원센터 3층 강당

- ▶ 강연내용 : - 오리고기 유통개선방향 (주원산오리 이우진 대표)
 - 오리산업동향 및 정책방향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정래 사무관)
 - 오리 주요질병 예방대책 (검역원 조류질병과 조성준 연구사)
 - 우리나라 HPAI 발생 역학적 특성 및 대응전략 (검역원 역학조사과 이상진 과장)
 - 오리육의 우수영양성분 분석 등 연구결과발표 (건국대학교 송혁 교수)

■ 오리의 영양성분 분석 등 연구 결과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송혁 교수 ■ 오전교육을 마친 뒤 점심식사. 특별구성으로 오리고기 메뉴가 추가되었다.

